

조선 해로사행의 인문지리학적 연구 4

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4

— 산동 청주부(하)



조선 해로사행의 인문지리학적 연구 4

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4

— 산동 청주부(하)

한종진·당윤희

역락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0-INC-2250002).

이 저서는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0-INC-2250002).

부족한 제자들을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르쳐주신  
은사 故 오수형 선생님께 본서를 바칩니다.



## 머리말

명청교체기에 해상사행로를 통해 명나라를 오갔던 조선사신의 중국 사행 기록인 해로조천록(연행록)에는 명청교체기 조선과 명, 청 사이에 이루어졌던 치열한 외교 활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문인들의 명과 청에 대한 인식,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전쟁과 경제 관계, 문화와 인적 교류 상황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사신들의 사행활동이 이루어진 사행로와 사행 경유지는 단순히 지도 상에 점과 선으로 표시된 물리적 교통로나 감정없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었던 발자취, 곧 그 시대사적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문화 유적지로서 재인식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문지리학 혹은 문학지리학의 시각에서 해로사행길에 올랐던 조선사신들의 과거 활동 공간을 현재의 중국 공간에 재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기록인 조천록을 현재의 공간에 소환하여 조선사신들이 남긴 시와 문장, 공문서, 일기, 그림 등을 분석하여 명말 중국 국내외 정세, 조선 사신들의 실제 외교 활동 모습, 중국 문인과 조선 문인 간의 시문 창화, 명말 중국 현지의 풍속과 생활 양상 등 사행활동의 실체를 생생히 파악하여 문헌에만 의존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처음에 조선사신들이 명나라로 사행을 가면서 주로 이용한 노선은 요동지역을 거치는 육로 노선이었다. 요동지역을 거치지 않고 해로 노선을 이용한 사행은 明初

(洪武, 建文 연간 1369—1402)와 明末(天啟, 崇禎 연간 1621—1636) 두 차례 비교적 짧은 기간에만 이루어졌다. 明初 사행의 목적지는 南京이었고, 明末 사행의 목적지는 북경이었다. 그런데 해로 사행로는 원래부터 한반도의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여러 왕조와 교류했던 중요한 사행길이었다. 산동 등주(登州)에는 대대로 한반도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신라관, 발해관, 고려관이 운영되었다. 조선의 경우 1621년 3월에 후금이 심양과 요양을 탈취하고 요동 반도 전역을 지배하게 되자 사신들이 육로로는 안전하게 왕래할 수 없게 되었기에 선박을 이용해 바닷길로 산동 등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1637년 1월 후금(청)과 정축맹약(丁丑盟約)을 맺은 조선은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후금(청)의 수도인 심양에만 사신을 보내게 되었고, 1644년 3월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한 후에는 조선 전기와 같은 육로 사행이 재개되었다.

본서에서는 명말 해로 사행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明末 해로 사행 관련 문헌들은, 명초의 해상사행 기록이 대부분 조천시 형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사행 중 겪은 구체적인 사건과 견문을 여정에 따라 기행문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사행 관련 공문서와 편지 등을 함께 수록하고 또한 지리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까지 있어서 공식적인 사행 활동이 이루어진 역사 현장, 현지 문인들 혹은 현지인들과 교류 양상, 당시 중국 현지의 상황, 민간풍속, 자연환경 등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문헌들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조천록(연행록) 연구가 주로 요동지역을 사행로로 하는 《열하일기(熱河日記)》,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담헌연기(澹軒燕記)》 등의 문헌에 대한 연구에 치중된 반면, 해상 사행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 이전 신라, 발해, 고려 등 왕조들도 해상 사행을 공식적인 경로로 활용했었으므로, 조선 시기 해상 사행로에 대한 연구는 차후 신라, 발해, 고려 시기 해상 사행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서는 명말 조선사신의 해로 사행 관련 문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문지리, 문학지리의 시각에서 사행 경유지 현지조사, 현지 연구자 및 주민 인터

뷰, 문헌 고증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조선사신의 사행 노선을 재구하고 지명의 역사적 변천을 살피며 사행록에 나타난 시와 문장을 분석하는 한편, 조선사신의 외교활동, 중국 문인 및 현지 주민들과의 문화적 인적 교류활동의 실체를 파악하여 조선 사신의 중국 문화공간을 총체적으로 그려보았다.

명말 평안도 앞바다에서 출항한 조선 사신들은 조선과 요동의 연안 도서를 따라 항해하다가 여순구(旅順口) 부근 해역(지금의 요녕성遼寧省 대련시大連市 노철산老鐵山 부근 해역)에서 남하하여 발해를 건너 산둥 등주(登州,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연태시煙台市 봉래蓬萊)에 상륙하였다. 이후의 육로 경유지는 정두원의 《조천기지도》에 따르면 등주부(登州府), 황현(黃縣), 황산역(黃山驛), 주교역(朱橋驛), 래주부(萊州府), 회부역(灰埠驛), 창읍현(昌邑縣), 유현(濰縣), 창락현(昌樂縣), 청주부(靑州府), 금령역(金嶺驛), 장산현(長山縣), 추평현(鄒平縣), 장구현(章丘縣), 용산역(龍山驛), 제남부(濟南府), 제하현(濟河縣), 우성현(禹城縣), 평원현(平原縣), 덕주(德州)이며 이상은 산둥성 경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로는 경주(景州), 부성현(阜城縣), 부장역(富庄驛), 헌현(獻縣), 하간부(河間府), 임구현(任丘縣), 막주(莫州), 웅현(雄縣), 신성현(新城縣), 탁주(涿州), 량향현(良鄉縣), 제경(帝京) 등으로 이상은 하북성 및 북경 경내이다. 본서는 2022년에 출간된 “조선 해로사행의 인문지리학적 연구 총서” 제3권 《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3 - 산둥 청주부(상)》(창락현[昌樂縣], 청주부[靑州府]) 연구를 지속한 결과물이며, 이후 제남부, 덕주부까지의 노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연구성과가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에 담긴 연구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다. 8년 전 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내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초빙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방학원학보(濰坊學院學報)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 대학 중문과 조홍위 교수가 조선 사신이 쓴 웨이팡(명대 당시 유현 濰縣) 관련 시문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국어문학과 소속이던 필자 일동은 명대 조선 사신들이 웨이팡 지역을 경유하면서 이 지역과 관련된 적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 때 처

음 알게 되었다. 필자 일동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조천록(연행록) 연구는 당시까지 발표된 논문만 5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이미 방대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요동지역을 거쳐서 갔던 청대 육로 사행 관련 연행록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명말 이루어졌던 해상 사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중국 현지 답사와 명대 문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문학지리적, 인문지리적 연구는 초보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건국대 중문과의 당윤희 교수, 웨이팡 대학 중문과의 조홍위, 진금방 교수, 한국어문학과 왕가, 한종진 교수, 난창공대 영상매체학과 김보경 교수가 의기투합하여 본 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많이 부족한 연구계획서였지만 웨이팡대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명말 조선 사신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경유지인 “유현(濰縣)”이었던 만큼 현지답사와 중국 현지 문헌 조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연구팀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특화형 한국학 연구”라는 연구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인지 결국 좋은 심사 평가를 받아 2017년도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초기단계)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고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도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발전단계)에 순조롭게 진입하여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연구팀은 명말 평안도 해안을 출발하여 한국의 서해와 중국의 발해를 거쳐 산둥 등주에 상륙한 조선사신들을 모두 조사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들이 남긴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2022년도에는 산둥 청주부 구간의 모든 사행록 문헌을 꼼꼼하게 강독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사신들이 동일한 경유지를 다양한 지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어떤 구간에서는 사신들의 경유 경로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사신들의 경유지 노선과 지명 관련 기록을 당시 중국 내 통용되던 지방지 및 관련 역사서를 참고로 꼼꼼히 고증하였고, 이 고증의 결과를 현지 답사와 현지인 탐방을 통해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현지 학예연구사나 현지 역사 연구자의 호의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사신들이 이용한 경로는 대부분 명과 청대 관방에서 관리하는 공식적

인 관도(官道)였는데, 근대 이후 이 관도가 대부분 국도로 재건되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오랜 기간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사지(地方史志)를 발간해 온 현지 학예연구사를 방문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연구 과정이었다. 어떤 때는 학예연구사들조차 구체적인 위치와 지명의 변천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라도 다행히 현지에서 대대로 살아온 촌로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통해 조선사신들이 거쳐간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 그 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답사 과정을 통해 조선사신들이 직접 걸었던 들판, 직접 보았던 산천, 직접 건넜던 강과 다리, 직접 겪었을 당시의 풍속, 직접 맛보았을 현지 음식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남긴 시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생생하게 살아나 연구자들의 가슴에 와 닿는 묘한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현지 촌로들의 사투리를 통해 당시 동일한 경유지를 거쳐간 여러 조선사신들이 현지 지명을 다양한 이체자(異體字)로 표기한 이유가 현지 사투리의 영향 때문임을 확인했을 때는, 연구자들 스스로가 사투리로 들은 지명을 어떤 한자로 기록해야 좋을지 고민했었을 조선 사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 매년 10여 차례에 가까운 현장답사를 다녀야 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를 초빙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중국과 한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서적을 출간하는 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한국정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이 없다면 본 연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에서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국학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전 원장님과 한국학진흥사업단 구난희 전 단장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는 연구팀에 큰 힘이 되었으며 실무책임자인 김예원님은 연구팀이 겪던 행정 절차 처리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 해결해 주었다. 웨이팡대 측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연구팀이 모여 연구하고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웨이

이광대 한국학 연구소”를 정식으로 설립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어대학 한택정 전 학장님의 도움이 컸다.

또한 2021년 12월 20일 연구팀이 주관하여 건국대에서 개최한 <제4회 한국학 해외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에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팀의 연구를 점검하고 소중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익철 교수님은 “연행록사전 편찬 경과와 기대 효과”를 발표하여 연구팀이 이미 확보한 조선 해로사행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연구의 성과물과 중국 지방지 내 한국사 관련 사료를 디지털 자료로 체계적으로 집성하는 데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셨으며, 건국대 사학과 한정수 교수님은 “고려 성종 시기 송과의 사신 왕래와 그 정치문화적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팀의 연구 시야를 한층 더 확대시켜주셨고, 오랜 기간 명칭교체기 조선 사행록을 연구해오신 공주대 한문교육과 이성형 교수님은 “조선 중기 대명 해로 사행노정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팀의 노선과 지명 고증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제안해 주어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주셨다. 그 밖에 건국대 사학과 한승현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은주 선생님,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장유승 선생님,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정숙 선생님께서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귀중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그리고 2023년 1월 7일 연구팀이 주관하여 웨이광대에서 개최한 <제5회 한국학 해외씨앗형사업 국제학술회의>에도 여덟 분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여 중국 내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한국문학 연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며, 특히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최석원 교수는 “唐詩 選集의 조선 간행과 수용의 역사”를 발표하여 사행활동을 통해 조선에 유입된 서적들이 조선의 학계와 문단에 어떤 과정을 거쳐 수용되고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중국과는 다른 조선 특유의 학풍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어 조선사신의 사행이 단순한 정치외교적 사안의 해결을 넘어 양국의 학문교류와 학술발전에 중대한 기능을 했음을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廣西科技大學 人文藝術與設計學院 高靜 교수는 한국의 안동 하회탈과 廣西 吉曼村 跳芒蒿탈을 문화인류학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여 한중문화비교연구